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의 응낙에 대한 설명모형 - 대학생중심으로 -

유 외 숙[†]
삼육대학교

박 경
서울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이성교제에서 파트너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를 받고 이에 응낙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9개 대학 2학년이상 남녀 학생 800명(남학생 360명, 여학생 434명)을 대상으로, 애착, 성관계 권력, 관계몰입의 차이, 응낙 동기, 성관계 빈도 및 교제기간 등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의 응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그 이론적 모형을 성별에 따라 AMOS 4.0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모형검증 결과는 성에 따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공통점으로는 첫째, 남녀 모두 개인의 애착요소 중 불안수준이 성관계 권력에는 부적효과를, 관계몰입차이와 성적 응낙동기에는 정적효과를 미치고 있었으며, 불안은 성관계 응낙 동기를 통하여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간접적으로 효과를 미쳤다. 즉 개인의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성관계 응낙 동기가 높아지며, 응낙 동기가 높아질수록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을 더 많이 하였다. 둘째, 이성교제에서 성관계 빈도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정적 효과를 미쳤다. 차이점으로는 첫째, 남학생집단에서는 의존은 성적 응낙동기에 부적 효과를 나타내며 접근은 관계 몰입차이에 정적 효과를 나타낸 반면에 여학생 집단에서는 의존과 접근은 관계 구조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남학생은 애착 요소인 의존 수준이 성관계 응낙 동기를 통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간접적으로 효과를 미쳤으며, 여학생은 애착요소인 접근수준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직접 효과를 미쳤다. 셋째, 여학생 집단에서만 성관계 권력이 불안수준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사이를 중재하고 있었으며 또한 교제기간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정적 효과를 미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 애착, 성관계 권력, 관계몰입의 차이, 성관계 응낙 동기

유외숙은 삼육대 외래교수, 박경은 서울여대 특수치료전문대학원에 근무하고 있음.

* 본 연구는 후기필자(박경)의 지도로 전기 필자(유외숙)가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연구(2004)를 바탕으로 한 것임

† 교신저자 : 유 외 숙, 전화 : 019-9244-8957 E-mail : ossom@sangdam21.com

대학생들의 성행동 경험의 조사 연구에 따르면 70%이상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으며, 이들 중 48%정도가 애무이상의 성적 접촉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향숙, 2001). 이성교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개입프로그램이 성적 성인기에 접어든 대학생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이성교제 안에서의 성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성적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보다 안전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연구들은 대부분 남자 파트너의 성적 흥미에 대해 여성들이 'NO' 라고 말하는 상황들을 일부 연구 해 왔으며 특히, 국내의 성행동 연구는 성폭력과 관련된 연구들을 제외하면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다.

파트너 사이에서 성적 관심이나 요구수준이 다를 때 개인의 특성이나 관계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들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로는 우선, 성적으로 흥미를 가진 파트너가 상대방의 "싫다"라는 말을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성적응낙을 받아내기 위하여 심리적인 압력이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성폭력의 한 유형인 데이트 강간에 대한 것이다(Hogben, 2000; Rapaport & Burkhart, 1984). 성폭력 실태 분석에 따르면 가해자의 6.3%~9.1%가 데이트 상대인 것으로 나타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이 꽤 많음을 알 수 있다(한국성폭력 상담소, 2000-2003). 다음으로는, 여자들이 남자들의 성적 모험에 대하여 어떻게 경계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McCormick, Brannigan, & LaPlante, 1984; Peplau, Rubin, & Hill, 1977). 또 다른 연구는 위와는 상반되는 대처 방식에 대한 것으로,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성적인 관심이 없거나 적은데도 불구하고 파트너의 성관계 요구에 응낙을 하는 경우 성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일부 진행되고 있다(Impett & Peplau, 2002b; O'Sullivan & Allgeier, 1998).

데이트 파트너와 성적 갈등이 발생할 때 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하고 난 후 경험하는 심리적 신체적 문제들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은, 관계 지속을 위하여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가 결별로 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자각하기도 한다. 경험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성교제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애무를 응낙한 비율은 전체 대학생의 20% 이상이었으며 성교를 응낙한 학생도 14.9%~19.4%로 나타나, 친밀한 관계에서 성욕구의 차이로 인한 성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향숙, 2001; 한경순, 함미영, 2000). 따라서 이성교제에서 파트너의 성관계 요구에 자신은 원하지 않으면서도 성관계에 참여하는 행동에 대한 연구는 파트너와의 성적 타협과 성관계에 영향을 주는 관계 역동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어서 상담과 성교육에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주제이다.

친밀한 관계에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응낙하게 될 때, 개인의 동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 후에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하게 된다. 파트너와의 성관계에서 자신이 희생자가 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며,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파트너의 요구에 응한 자신에 대한 분노나 부끄러움 등으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나 자존감의 손상 같은 정서적인 불편감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이런 부정적인 정서 경험들은 파트너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은 추후의 데이트관계에서 보다

쉽게 성폭행을 당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Impett & Peplau, 2003).

따라서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연구와 응낙행동을 하게 되는 경로의 연구는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의 욕구와는 상관없이 성행동에 응하게 되는 내담자들의 상담에 활용될 수 있다. 즉, 상담자가 관계맥락 속에서 내담자의 성행동을 이해하고 내담자의 통찰을 돕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문제 심리치료에서 성문제를 개념화하는 과정은 성문제 해결과정을 밝히는 것의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커플관계에서의 성행동과 관련된 변인들 중에서 연구자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변인들은 개인변인과 관계변인이다. Waters, Rodrigues와 Ridgeway(1998)는 커플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지에 관해 애착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성인애착 유형에 따라 관계적인 인지, 정서,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즉 안정애착형, 불안-양가형, 회피형에 따라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다른 기대를 하고 있으며, 파트너와 자신의 유용성에서 불안형 및 회피형은 안정형보다 효과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Klohnen과 Bera(1998)는 관계에 대한 기대나 신념, 관계형성, 지속성의 예측모델검증에서 불안형 및 회피형의 특성들이 관계만족, 관계지속성, 관계에 대한 기대등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변인들임을 설명하였으며 Crowell과 Treboux (2001)는 커플들의 결별을 예측하는 모형에서 불안애착이 이별과 이혼의 경향들을 예측하는 변인임을 밝힌 바 있다. 애착이론에 근거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의 선행 연구에서, 불안형은 데이트 관계에서 여성들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응낙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반하여 회피형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Impett & Peplau, 2002b). 본 연구는 애착유형에 따른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을 탐색하기보다는 애착 요소인 불안, 접근, 의존의 각 수준별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미치는 효과들을 분석하여 개인 안의 애착 특성들이 성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원하지 않는 성적 응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관계변인들을 좀 더 자세하게 연구 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결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성적 타협을 필요로 할 때 관계통제나 의사결정권이 중요한 권력으로 작용을 하며, 이러한 권력은 성적 협상능력을 좌우하게 되고, 특히 여성들의 안전한 성관계를 위한 협상에서 성관계 권력은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Pulerwitz, Gortmaker & DeJong, 2000; Wingood & DiClemente, 2000). 또한 성별에 근거한 힘의 불균형이 성행동의 형태나 빈도에서 차이를 나타내게 하였다(Amaro, 1988). 그리고 성관계권력은 콘돔사용에 대한 커플간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관계의 역동을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변인이었다(Harvey et al., 2002).

한편 심리적인 개념으로서의 관계몰입은 행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관계의 유지와 지속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관계에 더 많이 몰입하게 되는 이유는 투자모델로 설명이 되는바, 즉 이는 관계 안에서 얻는 만족, 투자의 비용, 대안선택의 빈곤정도에 따라 관계몰입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Agnew, Van Lange, Rusbelt, & Langston, 1997). 다수의 연구에서 관계 몰입이 관계지속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이며 관계만족과 투자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다(Kurdek, 1991; Rusbult & Martz, 1995). 데이트관계에서 자신이 파트너보다 더 몰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학생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mpett & Peplau, 2002b).

성행동 연구에서 그 ‘무엇’이 원하지 않는 성행동을 하게 만드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성행동의 이해를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따라서 개인의 애착특성에 따라 성관계 응낙동기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지와 애착요소에 따른 응낙동기 내용의 차이를 밝히는 것 또한 필요하다.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의 이유들을 밝힌 선행연구에서 ‘파트너와 친밀감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혹은 ‘파트너가 나를 떠날까봐 불안해서’가 중요한 이유로 나타나, 개인의 애착 특성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응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Impett & Peplau, 2000; O’Sullivan & Allgeier, 1998).

친밀한 이성애 관계에서 교제기간과 성관계 빈도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변혜정, 2004; Impett & Peplau, 2002b). 또한 많은 애착연구에서 안정애착이 관계지속에 정적인 영향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Fecney & Noller, 1992; Kirkpatrick & Davis, 1994) 교제기간과 성관계 빈도가 개인특성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사이에 중재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성관계 응낙에 직접 효과를 미치는 지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개인변인으로 애착요소인 불안 의존, 접근과 관계변인으로 성관계 권력, 파트너와의 관계몰입의 차이, 응낙동기, 교제기간과 성관계 빈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영향을 주는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 변인간의 경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경로는 성행동연구에서는 생리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들을 함께 연구해야 한다는 Bancroft(1997)의 주장에 근거하여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의 경로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

였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개인의 애착요소, 파트너간의 성관계 권력, 관계몰입의 차이, 응낙동기, 교제기간, 성관계 빈도는 대학생의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 행동에 어떠한 직간접 효과가 있으며, 이런 직간접 효과의 유형에서 성차를 보이는가?

방 법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생생활을 1년 이상 한 남녀 대학생이며, 편의표집 하였다. 서울지역 7개교 674명, 경기지역 2개교 239명, 충청지역의 2개교, 경북지역의 2개교 204명, 경남지역의 2개교 164명, 전남북지역의 2개교 86명, 강원지역의 2개교 227명 등 총 19개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1601명중에서 과거와 현재의 데이트 파트너와의 사이에서 파트너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 즉, 애무, 구강성교, 삽입성교요구를 적어도 한번이상 응낙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 한 남녀 대학생 829명의 자료 중에서 일부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29명을 제외한 총 800명(남학생 366명, 여학생 434명)이었다. 연구대상의 분포는, 서울시 266명(33.3%), 경기지역 104명(12.5%), 부산경남지역 64명(8.0%), 대전충청지역 72명(9%), 대구경북지역 107명(13.4%), 강원지역 131명(16.4 %) 전남북지역 2개교 56명(7%) 등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만18세~30세 사이로 남학생의 평균연령은 23.9세, 여학생의

평균연령은 21.4세였다. 학년별 구성은 2학년 40.3%, 3학년 22.0%, 4학년 37.7%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남학생의 83.1%가 군복무를 필한 학생이었다.

연구도구

성인애착 척도(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 RAAS)

애착 관계의 질에 대한 평가는 Collins와 Read (1990)에 의해 개발된 성인애착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은 요인 분석에 의해 의존, 불안, 접근의 세 하위 척도로 나누어졌으며 이 하위 척도는 애착과 다른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탐색할 때, 어느 애착요소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Collins와 Read(1990)는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의존 .71, 불안 .52, 접근 .68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척도에서 내적 합치도를 낮추는 문항('나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편하다', '나는 상대방과 하나로 융합되고 싶다',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하려는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을 제거한 총 15문항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남녀 각각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의존이 .67과 .61 이었으며, 불안이 .72과 .74 이었고 접근이 .61과 .62 였다.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 척도(Consensual Unwanted Sex Scale)

성적 응낙의 정도를 알아보는 질문지는 Impett와 Peplau(2002b)가 제작하여 사용한 질문지를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연구자가 제작하여 임상심리학과 발달심리학 교수 2인의 문항 내용타

당성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 문항은 '현재 사귀고 있는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과의 성적인 접촉을 원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혹은 피로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들로 인하여 파트너의 성적 요구에 별로 응하고 싶지 않았을 경우에 파트너의 요구(애무, 구강성교, 삽입성교)가 있을 때마다 당신은 어느 정도 응했는지를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단 현재 사귀고 있는 파트너가 없는 경우에는 과거의 파트너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었다. 참여자들은 그들이 세 종류의 성행동 즉 애무, 구강성교, 삽입성교에서 각각의 성 접촉 요구에 응낙하는 정도를 '전혀 응하지 않았다'에서 '언제나 응했다'까지 7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적어도 한번 이상 성관계 응낙을 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4점에서 최고 2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남자 .81 여자 .69, 전체 .79 였다.

성관계 권력 척도(Sexual Relationship Power Scale)

성관계 권력 척도(SRPS)는 Pulerwitz, Gortmaker와 DeJong(2000)이 표준화작업을 한 성관계 권력을 측정하는 척도이며, 이 척도는 관계통제와 의사결정 우월성의 두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래 SRPS는 HIV/STD연구에서 성관계의 권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만든 척도이며, 관계통제 요인 15 문항과 의사결정 우월성 요인 8개 문항,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통제 요인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6, 의사결정 우월성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62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관계 안에서의 관계통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RPS의 하위범주인 관계통제요인 15 문항 중에서 콘돔과 관련된 3문항을 제외한 12 문항을 연구자가 번안하여 발달심리를 전공한 교수의 감수를 받아서 사용하였으며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남자 .67, 여자 .70이었다.

관계몰입 질문지(Relationship Commitment Questionnaire)

Rusbult, Martz와 Agnew(1998)가 표준화 작업을 한 관계몰입(relationship commitment)에 대한 표준화된 7개 항목을 연구자가 번안하여 발달심리를 전공한 교수의 감수를 받아서 사용하였다. 문항 내용은 '나는 우리의 관계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원한다'와 '나는 내 파트너와 함께 나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전념한다'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9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으로 높았다. 또한 이 척도는 파트너의 관계 몰입의 정도를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 항목들은 파트너의 입장에서 동일하게 수정되었다(예; 내 파트너는 우리의 관계를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원한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파트너의 몰입정도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9였다. 본 연구에서는 파트너 사이의 관계 몰입의 차이를 산출하기 위하여 각 문항에서 자신의 관계몰입 점수에서 인지하고 있는 파트너의 관계몰입 점수를 뺀 점수를 관계몰입의 차이점수로 하였다. 이 차이가 양수이면 자신이 관계에 더 몰입되어 관계 지속을 더 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의 차이가 음수이면 파트너가 관계 지속을 더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자신의 관계몰입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남녀 모두 .89였으며,

인지하고 있는 파트너의 몰입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남자 .92, 여자 .89로 높게 나왔다.

성관계 응낙 동기 질문지(Reasons for Sexual Compliance Questionnaire)

성관계 응낙을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은 대학생들이 최근 또는 과거의 데이트 관계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를 응낙하게 된 이유들을 상기시키도록 하는 질문들이다. 이 문항들은 본인이 성관계를 원하지는 않지만 응낙하는 이유들을 밝히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Impett와 Peplau(2002b)의 12문항을 본 연구자가 우리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발달심리 전공 교수의 감수를 받아서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내용은 '나는 관계에서 더욱 더 친밀해 지기를 원했다' '나는 내 파트너의 욕구를 만족시키기를 원했다'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동기와 '만약 내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면 파트너가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었다'와 '만약 내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면 파트너가 우리의 관계를 끝내겠다고 협박할까봐 걱정이 되었다'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동기들이 포함되어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남녀 대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하여 Varimax 직교회전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을 한 결과 남녀별 요인구조에서 다르게 묶이는 3문항을 빼고 남녀 공통으로 3요인으로 묶이는 9문항만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동기의 하위요인은 접근(1, 2, 3), 호기심(4, 6), 회피(8, 9, 10, 11)로 요인명을 정하였다. 문항 내용은 "내가 원하지 않는 성행위(애무, 구강성교, 삽입성교)를 현재파트너나 과거의 파트너가 요구하였을 때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응낙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신이 응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느 정도 중요했습니까?”이다. 응낙 동기의 중요성의 정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에서 ‘아주 중요했다’까지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경로 분석에서는 응낙동기의 하위요인의 각 점수를 합산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관계 응낙 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조사는 2004년 1월 9일부터 3월 26일까지였으며, 1월은 계절학기 수업을 활용하였다. 서울, 경기지역을 포함한 5개의 광역시와 전국 7개도에 위치한 19개교 대학에서 전공에 상관없이 각 학교 당 14과목의 수업에 연구자가 직접 수업에 참여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연구자가 곧장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총 1828명의 질문지를 수거하여 이 중에서 올 3월에 입학한 신입생의 자료 227부를

제외한 1601명의 자료를 1차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중에서 과거나 현재의 데이트 파트너 사이에서 파트너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애무, 구강성교, 삽입성교)요구에 적어도 한번이상 응낙한 경험이 있는 남녀 대학생 829명의 자료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에서 문항이 누락된 29명의 자료들을 제외하고 총 800부(남학생 366명, 여학생 434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방법은 SPSSWIN 11.0 프로그램과 AMOS 4.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성경험 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인 경향을 알아보고자 성별에 따라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각 측정변인들의 점수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 변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성별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가설의 검증을 통해 관련 변인들간의 관련 모형을 검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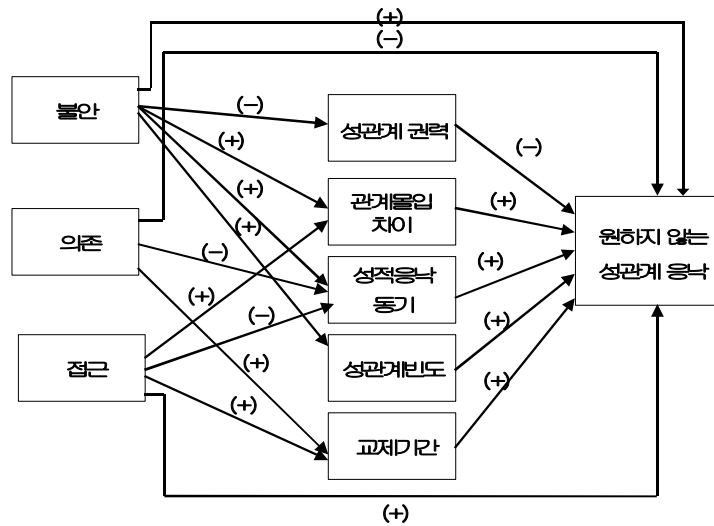


그림 1. 원하지 않는 성관계요구의 응낙에 대한 이론적 모형

고자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였고, 이는 AMOS 4.0으로 처리하였다. 모형 검증을 위한 미지수와 부합지수들의 계산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되는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결 과

경로분석에 포함된 측정 변인의 성차에 따른 일반적인 경향과 차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데이트 관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애착 요인인 불안점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2.91, p < .01$). 그리고 의존 수준은 남학생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2.81, p < .01$) 접근수준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t=4.01, p < .001$).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응낙 경험을 한 여학생집단은 남학생집단 보다 불안수준은 더 높고 의존과 접근 수준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존과 접근 수준이 낮은 것을 회피로 볼 때 여학생집단이 남학생집단 보다는 회피 성향이 더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녀 모두 불안 수준은 낮으며 의존과 접근 수준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비교적 안정애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하여 데이트 관계에서 좀 더 대인 관계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계특성의 하위영역인 성관계권력 수준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관계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t=-6.02, p < .001$). 관계 몰입수준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관계 몰입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t=3.16, p < .001$). 파트너의 관계몰입수준에 대한 인지에서는 남학생 집단보다 여학생집단에서 파트너가 관계유지를

표 1. 경로분석에 포함된 변인들의 기술적 결과와 성차 (N=800)

변 인	남자($n=366$)	여자($n=434$)	t	
	평균(SD)	평균(SD)		
애착	불안	12.24(3.18)	12.90(3.29)	2.91***
	의존	16.33(3.16)	15.72(2.87)	-2.81**
	접근	16.87(2.82)	16.05(2.91)	4.01***
성관계권력	32.81(4.03)	34.61(4.40)	-6.02***	
자신의 관계몰입	37.17(12.32)	34.39(12.50)	3.16***	
인지된 파트너의 관계몰입	36.54(12.26)	39.56(11.79)	-3.54***	
파트너사이의 관계몰입의 차이	0.62(10.94)	-5.17(12.54)	6.89***	
성관계 응낙 동기	35.04(7.92)	29.63(8.25)	9.40***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	11.79(4.44)	8.47(3.41)	11.96***	

** $p < .01$, *** $p < .001$

더 원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t=-3.45, p < .001$). 또한 자신의 관계 몰입수준에서 인지하고 있는 파트너의 몰입수준을 뺀 관계몰입의 차이에서는 남학생들은 자신이 파트너보다 관계에 더 몰입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M=0.62, SD=10.94$) 여학생들은 파트너($M=-5.17, SD=12.54$)가 훨씬 그들의 교제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들은 자신이 파트너보다 더 관계지속을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여학생들은 파트너가 관계지속을 자신보다 훨씬 더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대학생의 이성교제에서 자신이나 파트너의 관계몰입에서 남녀 모두 남자가 이성교제 유지를 더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관계몰입의 차에서 성별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6.89, p < .001$). 다음으로 성관계 응낙동기 수준에서 성별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남학생의 응낙동기 수준이 여학생의 응낙동기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9.40, p < .001$). 또한 성관계 빈도 문항에서는 남학생 집단을 보면, 주 1

회 이상 성관계를 한다고 한 남학생이 30.9%, 월 1~2회 정도는 43.7%, 2~3개월에 한, 두 번 정도가 8.7%, 1년에 몇 번이 10.4%, 단 1회만 성관계를 했다는 6.3%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주 1회 이상이라고 한 학생이 28.6%, 월 1~2회 정도가 41.2%, 2, 3개월에 한, 두 번 정도가 13.4%, 1년에 몇 번 정도가 9.0%, 한번만 했다가 7.8%로 나타났다. 성관계 빈도에서는 남녀 모두 1개월에 한 두 번 이상 성적 접촉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과반수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요변인들의 성별 간 차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성관계에서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을 설명하는 모형검증은 성별을 나누어 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표는 남녀별로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이론적 모형의 적합도 분석

구조 방정식 모형검증에는 AMOS 4.0을 사용하였고, 모수 추정은 Maximum Likelihood(ML) 추정방식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수치로

표 2. 남학생의 측정 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의존	-								
2. 불안	-.50***	-							
3. 접근	.29***	-.26***	-						
4. 성관계권력	.21***	-.35***	.14**	-					
5. 관계몰입차이	-.13**	.25***	.05	-.11*	-				
6. 성관계응낙동기	-.25***	.29***	-.13	.19***	.23***	-			
7. 성행위빈도	.00	-.06	.06	.08	-.08	.00	-		
8. 교제기간	.06	-.09	.10	.09	.03	-.03	.25***	-	
9. 성관계응낙	-.08	.02	.05	-.05	.00	.19***	.36***	.15**	-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여학생의 측정 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의존	-								
2. 불안	-.49***	-							
3. 접근	.23***	-.19***	-						
4. 성관계권력	.20***	.29***	.10*	-					
5. 관계몰입차이	-.05	.23***	.02	-.14**	-				
6. 성관계응낙동기	-.14***	.29***	-.08	-.25***	.20***	-			
7. 성행위빈도	-.04	-.07	.02	-.06	.03	.14**	-		
8. 교제기간	.04	-.07	-.03	.08	.00	.06	.07	-	
9. 성관계응낙	-.08	.06	.05	-.13**	.09	.26***	.41***	.26***	-

* $p < .05$, ** $p < .01$, *** $p < .001$

는 χ^2 , χ^2/df ,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 (Adjusted Gooness-of-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성별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남학생과 여학생집단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구조 방정식 모형을 산출한 후 중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한 모집단의 모수와 다른 집단의 모수간의 비교가 가능한 방법이다. 공통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4와 같이 산출되었다.

표 4에서 제시된 가설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 부합지수인 GFI의 값은 0 ~ 1 사이에 있으며, 값이 클수록 좋은 적합도를 보이며 본 연구에서 GFI 지수가 .98로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분부합지수에 해당하는 수정 부합지수 AGFI는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보는데 본 연구 모형의 AGFI 지수가 .90이므로 적합한 것으로 해석한다. 상대적합수치인 CFI는 그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적합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91로 적합하였다. 또한 근사 원소평균자승 잔차 (RMSEA)는 χ^2 통계량의 한계를 수정하기 위해 개발된 측정지수이며 일반적으로 RMSEA의 수용기준은 아주 좋은 적합은 .05이하이며 .05이상 .08은 좋은 적합으로 보며 본 연구에서는 .0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응낙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	df	p	χ^2/df	GFI	AGFI	CFI	RMSEA
가설모형	92.98	22	0.00	4.23	0.98	0.90	0.91	0.06

남학생 집단에서 이론적 모형의 변인간 경로 분석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대한 이론 변인간의 경로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 방정식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이론적 모형의 경로와 표준계수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에 나타난 분석 결과 개인의 불안수준은 성관계 권력에 부적인 직접효과가 있으며, 관계몰입 차이는 정적인 직접 효과를 나타냈으며 성적 응낙동기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하였다. 그러나 남학생이 불안수준은 성관계 빈도와 교제기간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의존수준은 성관계 응낙동기에 부적인 직접 효과를 미쳤으며, 접근수준은 관계몰입 차이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하였다. 또한 개인의 애착 요소의 수준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살펴보면 불안수준과 의존수

준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적 응낙동기를 통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간접적으로 효과를 미쳤다. 그러나 개인의 친밀감의 정도를 의미하는 접근수준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대해서는 직 간접 효과를 미치지 않았다. 한편 데이트 관계특성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성관계 응낙동기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미쳤다. 그리고 파트너 사이의 성관계 빈도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정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데이트 관계 안에서의 성관계 권력, 관계몰입의 차이, 교제기간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남학생 집단에서 나타난 성인애착 요소인 불안, 접근, 의존수준으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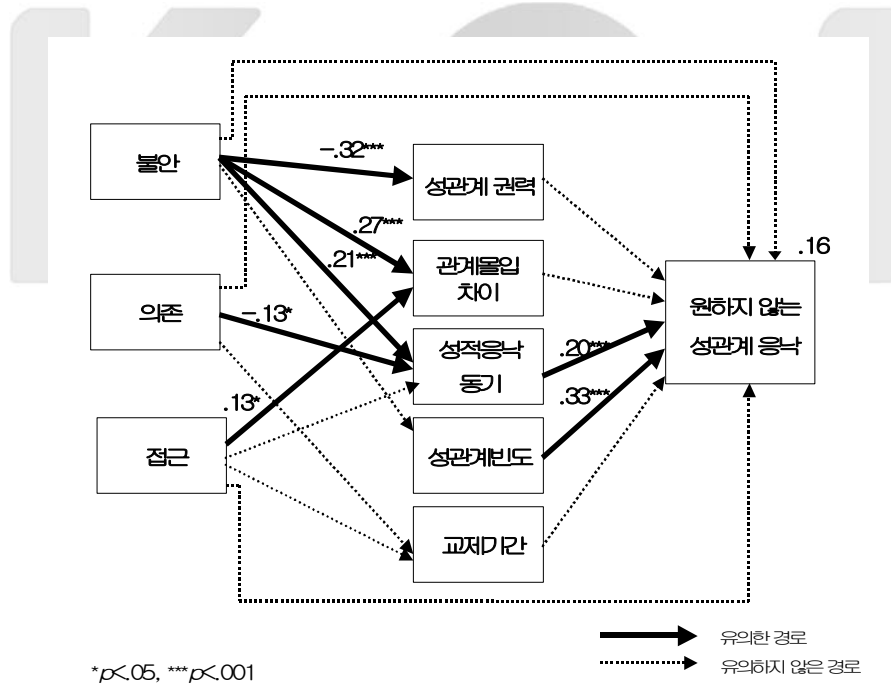


그림 2. 남학생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요구의 응낙에 대한 모형 경로와 표준화 계수

터 남학생의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이르는 직간접 경로는 다음과 같다. 남학생의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파트너가 거부당했다고 느끼기를 원치 않아서’ ‘파트너가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등의 성관계 응낙동기가 높아지고, 응낙동기가 높아질수록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을 더 많이 한다. 의존수준은 이성교제에서 성관계 응낙동기를 통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간접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자신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타인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신뢰가 적을수록 ‘이미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관계의 긴장을 피하고 싶어서’ 등의 성적 응낙동기가 높아지며 이렇게 성적 응낙동기가 높아질수록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을 더 많이 한다. 이러한 경로는 이성교제에서 남학생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의 행동을 16%를 설명하였다. 한편 변인 간 부분적

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서는 불안수준이 성관계 권력에 미치는 직접경로, 불안수준이 관계몰입 차이에 미치는 직접경로, 접근수준이 관계몰입 차이에 미치는 직접경로, 성관계 빈도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미치는 직접경로가 유의하였다.

여학생 집단에서 이론적 모형의 변인간 경로 분석

여학생의 불안, 의존, 접근수준, 관계변인인 성관계 권력, 관계몰입의 차이, 응낙동기수준 그리고 성관계 빈도와 교제기간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미친 직간접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 방정식을 이용한 모형 검증을 한 결과, 유의하게 나타난 이론적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불안수준은 성관계 권력에 부적인 직접효과가 그리고 관계몰입 차이와 성적 응낙동기에는 정적인 직접효과가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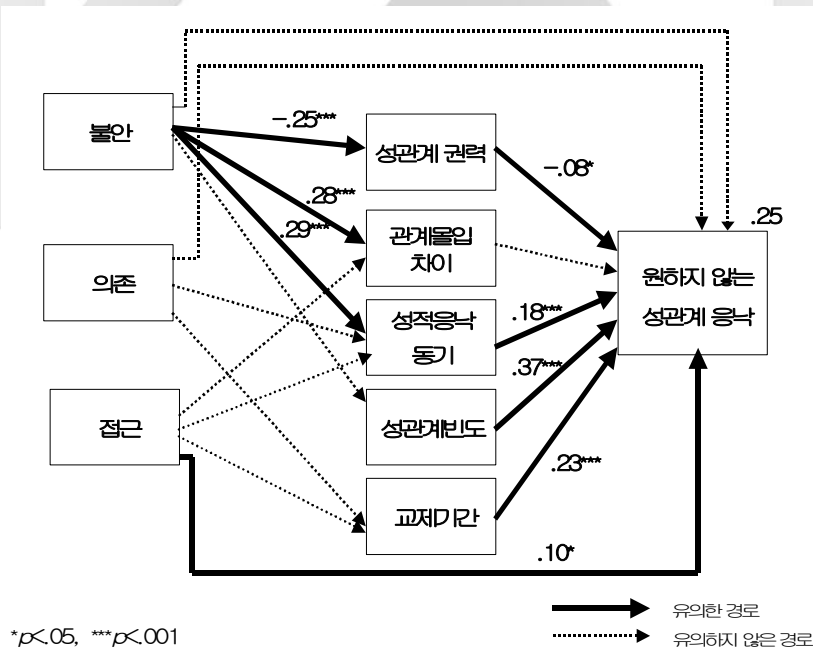


그림 3. 여학생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의 응낙에 대한 모형 경로와 표준화 계수

의하였다. 의존수준과 접근수준이 성관계 권력, 관계몰입의 차이, 성적 응낙동기, 성관계 빈도와 교제기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착요소의 수준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살펴보자면 불안수준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성관계 권력과 성관계 응낙동기를 통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간접적 효과를 미쳤으며, 접근 수준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존수준은 파트너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대한 직간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변인인 성관계 권력과 관계 몰입의 차이, 성관계 응낙동기와 성관계 빈도와 교제기간이 데이트파트너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성관계 권력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부적인 직접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성관계 응낙동기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행동에 정적인 직접효과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관계몰입 차이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관계상황인 성관계 빈도와 교제기간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미치는 정적인 직접효과는 유의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여학생 집단에서 나타난 성인애착 요소인 불안, 접근, 의존수준으로부터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이르는 직간접 경로는 다음과 같다. 여학생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성관계에 있어서 관계통제나 의사결정을 하는 힘을 더 적게 가지며 이렇게 파트너 사이에서 권력이 적다고 인지할수록 여학생 집단에서는 파트너의 성관계요구에 더 많이 응낙하고 있다. 여학생은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파트너가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을까봐’ 나 ‘관계를 끝내겠다고 협박

할까봐’ 등의 성적응낙 동기들이 증가하게 되며, 이렇게 응낙 동기들이 높아질수록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을 많이 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타인에게 쉽게 접근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접근수준이 높을수록 데이트 관계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경로는 이성교제에서 여학생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의 행동을 25%를 설명하였다. 한편 변인 간 부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에서는, 불안요소가 몰입차이에 미치는 직접 경로, 성관계 빈도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미치는 직접 경로, 그리고 교제기간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직접 미치는 경로 등이 유의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에 따르면, 본 연구의 가설모형은 대학생의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남학생(16%)보다 여학생(25%)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행동을 더 잘 설명하는 모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논 의

주요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첫째, 애착요소 중 불안 수준은 대학생들의 이성교제에서 응낙동기를 통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행동에 대해 간접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로 구조는 남 녀 집단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수준이 높은 개인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적 협상에서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한다.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성관계 응낙동기가 높아지는 것은 불안특성이 강박적으로 타인과 매우 가까워지기 싫어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 가까워지지 않을까 봐 걱정하며,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것은

파트너에게 정서적, 행동적으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이런 취약성들로 인해 데이트 과정에서 성관계의 협상이 필요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파트너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과도하게 자신을 통제하고 억제하게 되며, 원하지 않는 성관계요구에 더 많이 응낙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애착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경험적으로 지지되어 왔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Main & Goldwyn, 1985).

둘째, 남녀 모두 불안 수준이 성관계 권력 수준에 직접 영향을 주고는 있었지만 남학생 집단에서는 성관계 권력이 불안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의 응낙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반하여 여학생 집단에서는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었다. 불안 수준이 높은 여학생은 성관계에서 관계 통제나 의사결정력 같은 성관계 권력을 파트너보다 적게 가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성관계 권력이 적다고 느낄수록 파트너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에 더 많이 응낙하고 있었다. 이는 여학생 집단에서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의사 결정력이나 관계주도성 같은 권력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교환이론과 젠더역할이론에 근거하여 해석해 보면, 여학생들은 이성교제에서 파트너와의 힘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성관계를 자신의 자원으로 생각하고 활용 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여성이 파트너의 성관계 요구에 대처하는 방식을 파트너를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힘으로 지각한다면 관계 안에서의 주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더 자주 응하게 될 지도 모른다. Harvey 등(2002)에 따르면 여성들은 어떤 것을 자신의 자원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남성과는 달리 자신의 성적매력과 성관계를 허락하는 것과 성관계 제의를 거절하는 것을 자원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는 시각으로는, 여학생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을 인지하고는 파트너와의 성적 협상을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낙하고 난 이후 심리적 증후를 더 많이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이다(Amaro, 1995; Wingood & DiClemente, 1998, 2000). 그리고 사랑과 보살핌의 역할, 성적 협상에서의 소극적인 태도들은 전형적인 여성 역할로 내재화되어 파트너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셋째, 접근 수준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미치는 효과에서의 성차를 보면, 남학생 집단은 친밀한 관계에서 편안함을 더 많이 느낄수록 파트너보다 관계에 더 몰입하게 되는데 반하여, 여학생 집단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만족과 관계지속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변인이다(이복동, 2001; Kirkpatrick & Hazan, 1994; McCarthy & Taylor, 1999). 성별에 따른 이런 경로의 차이는 젊은 남성들은 성에 대해 신체 중심적이거나 오락적인 지향을 더 많이 하는데 반하여, 젊은 여성들은 관계 안에서 성을 정서적 관계과정의 통합으로 보며 성관계를 사랑과 정서적 친밀감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성적 지향에서의 차이로 해석 할 수가 있을 것이다(DeLamater, 1987; Leigh, 1989). 이런 결과는 회피적으로 애착된 여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응낙을 가장 적게 하며(Impett & Peplau, 2002b), 여성은 쾌락 때문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파트너와의 정서적인 친밀성 때문에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다는 내담자들의 언급(변혜정, 2004)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이는 여성들이 친밀성을 증가시키려는 관계 맺기의 한 수단으로서 원하지 않는 상황에

서도 성관계에 응낙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의존수준은 남학생 집단에서만 성적 응낙동기를 통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간접적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남학생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타인과 자신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동기는 낮아지며,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도 보다 적게 하였다. 이는 타인의 자원이 적다고 지각하는 남학생일수록 데이트 관계에서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관계에 응낙할 가능성이 더 있음을 의미한다. 청년기의 남성들의 생리적인 특성인 높은 성적 욕구나 호기심과 전형적인 남성 성각본의 영향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남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적은 회수의 성관계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성관계에서 파트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보고한 남자 대학생은 2% 정도뿐이었다(Carroll, Volk & Hyde, 1985; Julien, Bouchard, Gagnon & Pomerleau, 1992)는 연구결과들에서 알 수 있듯이, 남학생들의 원하지 않는 성적 요구의 응낙 일부는 성적 욕구나 호기심의 동기화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남성들에게 암묵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성 각본, 즉 성관계를 주도하고, 언제나 성관계를 하기 위해 준비된, 그리고 성적 능력이 강한 것을 남성성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성의 사회문화적 압력들이 있다(Baumeister & Twenge, 2002). 이러한 남성 성문화의 압력 때문에 파트너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게 됨으로써 남성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를 한다면 파트너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에 더 응낙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한편, 남학생들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대안적인 선택이 빈약하다고 여겨질 때 파트너의 성적 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는 것은 투자모형(Rusbult, Martz & Agnew, 1998)에 근거한 해석이 될 것이다.

다섯째, 교제기간이 길수록 여학생 집단에서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을 더 많이 하였다. 이는 이성교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학생들은 파트너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교제기간이 긴 경우에, 여학생들은 파트너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자신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으로 평가받게 되거나 혹은 파트너가 거부당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 싫어서 성적응낙을 선택할 수가 있다. 특히 긴 시간을 함께 해 온 파트너들은 그들의 관계에 투여한 자원들(이 자원은 관계가 끝나게 되면 가치가 거의 없거나 상실되어 버리는 것임)때문에 거절보다는 응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파트너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올 수 있는 관계단절에 대한 두려움과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보며 배려해야 할 것 같은 성과 관련된 사회적 압력들과 성인식들이 성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주제는 상담현장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성문제 상담내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본 결과는 이성교제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성 내담자들의 다양한 심리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섯째, 남녀 모두가 성관계 빈도가 많을수록 원하지 않는 성관계응낙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결과는 이성교제에서 성관계를 한번 이상 한 이후에는 성관계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는 여성은 데이트관계에서 성관계를 한번하고 난 뒤는 ‘그 남자의 여자’로 일상화되며 남자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기 위하여, 의무로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변혜정(2004)의 질적 분석내용과 같은 결과를

보였으나 여대생들이 이성관계에서 성관계 빈도가 많을수록 원하지 않는 성적 응낙은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보고된 Impett와 Peplau(2002b)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성적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성행동들이 문화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의 문화권 안에서의 성 행동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남학생들에 있어서, 성관계 빈도가 많을수록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 연구가 주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비교할 경험적 자료는 없다. 따라서 추후에 남자들의 성적 응낙동기 내용분석을 통하여 이 부분의 일부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성적의사결정의 문제들을 돕고 개입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성문제 심리치료와 성교육에 원하지 않으면서도 응낙하는 성행동을 개념화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개념화 과정은 생물학적인 성차와 파트너간의 관계특성들과 개인의 애착특성을 포함한 심리사회적인 측면이 고려될 때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의 중요 변인인 불안수준과 성관계 권력, 관계기간 응낙동기 등에 대한 이해는 관계 안에서의 역동의 이해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연애관계와 대인관계 패턴을 내담자가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상담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의의는 원하지 않으면서도 성관계에 응낙하는 심리내적 동기들의 탐색과정과 상담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일부 개념화 한 것과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서 개인의

차를 이해하기 위하여 애착 이론구조를 적용하여 유용성을 증명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경로에서 성별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냄으로써 우리나라 남녀대학생들의 성태도와 성인식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일부 얻을 수 있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남자 파트너에 의한 성폭행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여성들의 취약성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 낼 수가 있으며, 원하지 않는 임신과 성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왜 실패하는지를 설명하는데 본 결과가 도움이 될 것이다.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낙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회피동기의 일부는 콘돔사용과 같은 성관계의 타협을 어렵게 하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끌 수가 있으며, 접근동기의 일부는 위험한 성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 실험한 모델은 애착요소인 불안, 의존, 접근수준이 성관계 권력과 관계 몰입의 차이와 응낙 동기들에 직접 효과를 미친다. 본 자료에서 이들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 변인들이 원인적인 부분을 결정적으로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자신이 파트너보다 성관계 권력을 적게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거나 관계 몰입을 파트너보다 더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것으로 지각하는 심리적인 경험들은 남녀 학생들의 불안수준을 높이고 접근과 의존수준을 낮추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종단적인 연구를 통하여 방향성에 대한 원인적인 연결을 좀 더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애착과 관계구조와 관계 상황의 변인들이 원하지 않는 성행동의 응

낙의 변량을 여학생은 25%, 남학생은 16%만 설명을 하였다. 성적 응낙을 보다 더 설명할 수 있기 위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중요한 변인들이 더 밝혀져야만 하며, 성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의존성, 자기 효능감, 학습된 성에 대한 인식, 의사소통방식, 문제해결 능력 등이 원치 않는 성행동의 응낙과도 관련이 있는지도 추후 연구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가 다른 문화권에서 만들고 사용되어온 척도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은 문항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가 추후의 경험적 연구들을 통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향숙 (2001). 대학생의 애착, 사랑유형에 따른 성 행동.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변혜정 (2004). 성폭력 피해 구성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복동 (2001). 성인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경순, 함미영 (2000). 일개 대학 대학생들의 성 지식, 태도 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1), 115-131.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식지 나눔터 33호(2000) ~ 46호(2003).
- Agnew, C. R., Van Lange, P. A. M., Rusbult, C. E., & Langston, C.A. (1997). Cognitive interdependence: Commitment and mental representation of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74, 939-954.
- Amaro, H. (1988). Considerations for prevention of HIV infection among Hispanic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2(4), 429-443.
- Bancroft, J. (1997). *Researching sexual behavior: Methodological Issues*. (Ed.) Indianapolis: The University of Indiana Press.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aumeister, R. F., & Twenge, J. M. (2002). Cultural suppression of female sexuality.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6, 166-203.
- Carroll, J. L., Volk, K. D., & Hyde, J. S. (1985).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s in motives for engaging in sexual intercours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4, 131-139.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Crowell, J., & Treboux, D. (2001). Attachment security in adult partnerships (pp. 28-42). In C. Clulow (ed.), *Adult attachment and couple psychotherapy: The "secure base" in practice and research*. London: Brunner-Routledge.
- DeLamater, J. D. (1987). Gender differences in sexual scenarios. In K. Kelley (Ed.), *Females, males and sexuality: Theories and research* (pp. 127-129).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Feeney, J. A., & Noller, P. (1992). Attachment style and romantic love: Relationship dissolution.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44, 69-74.

- Harvey, S. M., Beckman, L. J., Browner, C., & Sherman, B. C. (2002). Relationship Power, decision making, and sexual relations: an exploratory study with couples of Mexican origin. *Journal of Sex Research*, 39(4), 284-291.
- Hogben, H. (2000). Patterns of Conflict Resolution Within Relationships and Coercive Sexual Behavior of Men and Women.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43(5/6), 341-357.
- Impett, E. A., & Peplau, L. A. (2000, August). Saying "yes" but thinking "no": Consensual participation in unwanted sex.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Impett, E. A., & Peplau, L. A. (2002b). Why some women consent to unwanted sex with a dating partner: Insights from attachment theor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6, 359-369.
- Impett, E. A. & Peplau, L. A. (2003). Sexual compliance: gender, motivational, and relationship. *The Journal of Sex Research*, 40(1), 87-100.
- Julien, D., Bouchard, C., Gagnon, M., & Pomerleau, A. (1992). Insiders' views of marital sex: A dyadic analysis. *Journal of Sex Research*, 29, 343-360.
- Kirkpatrick, L. A., & Davis, K. E. (1994). Attachment style,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502-512.
- Kirkpatrick, L. A., & Hazan, C. (1994). Attachment styles and close relationships: A four-year prospective study. *Personal Relationships* 1, 123-142.
- Klohnen, E. C., & Bera, S. (1998). Behavioral and experiential patterns of avoidantly and securely attached women across adulthood: A 31-year longitudin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211-223.
- Kurdek, L. A. (1991). Correlates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cohabiting gay and lesbian couples: Integration of contextual, investment, and problem-solv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910-922.
- Leigh, B. C. (1989). Reasons for having and avoiding sex: Gender, sexual orientation, and relationship to sexual behavior. *Journal of Sex Research*, 26, 199-209.
- Main, M., & Goldwyn, R. (1985). Adult attachment classification system.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A.
- McCarthy, G., & Taylor, A. (1999). Avoidant/ambivalent attachment style as a mediator between abusive childhood experiences and adult relationship difficult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0, 465-477.
- McCormick, N. B., Brannigan, G. G., & LaPlante, M. N. (1984). Social desirability in the bedroom: Role of approval motivation in sexual relationships. *Sex Roles*, 11, 303-314.
- O'Sullivan, L. F., & Allgeier, E. R. (1998). Feigning sexual desire: Consenting to unwanted sexual activity in heterosexual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ex Research*, 35, 234-243.
- Pulerwitz, J., Gortmaker, S. L., & DeJong, W. (2000). Measuring sexual relationship power in HIV/STD research. *Sex Roles*, 42(7/8), 637-660.

- Rapaport, K., & Burkhart, B. (1984). Personality and attitudinal characteristics of sexually coercive college mal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 216-221.
- Rusbult, C. E., Martz, J. (1995). Remaining in an abusive relationship: An investment model analysis of nonvoluntary commit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558-571.
- Rusbult, C. E., Martz, J. M., & Agnew, C. R. (1998). The investment model scale: Measuring commitment level, satisfaction level, quality of alternatives, and investment size. *Personal Relationships*, 5, 357-391.
- Waters, H. S., Rodrigues, L. M., & Ridgeway, D. (1998). Cognitive underpinning of narrative attachment assessment.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71, 211-234.
- Wingood, G. M., & DiClemente, R. J. (2000).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Gender and Power to examine HIV related exposures, risk factors and effective interventions for women. *Health Education & Behavior*, 27(5), 539-565.

원 고 접 수 일 : 2004. 8. 31
수정원고접수일 : 2004. 10. 20
게 재 결 정 일 : 2004. 11. 11



An Explanatory Model of Unwanted Sexual Compliance with Dating Partners among College Students

Oe-Sook YOO

Sahmyook University

Kyung Park

Seoul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how the factors such as attachment, sexual relationship power, difference in relationship commitment, reasons for sexual compliance, frequency of sexual activity and relationship duration affected unwanted sexual compliance, and developed an explanatory model of those factors' effectiveness separately by gender. Eight hundred students(366 men and 434 women) from sophomore to senior of 19 colleges in Korea, who had consented to unwanted sex with a dating partner, participated in this study. Consensual unwanted sex scale, 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RAAS), sexual relationship power scale(SRPS), relationship commitment questionnaire(RCQ) and reasons for sexual compliance questionnaire were used as the instrument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al analysis, t-test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SPSSWIN 11.0 and AMOS 4.0. Findings are as follows; Two significant paths were appeared among men. First, the higher individual anxiety level caused the higher reasons for sexual compliance, and the more unwanted sexual compliance appeared accordingly. Second, the less individual dependence level caused the higher reasons for sexual compliance, and the more unwanted sexual compliance appeared accordingly. Three significant paths were appeared among women. First, the higher individual anxiety level caused the less sexual relationship power, and the more unwanted sexual compliance appeared accordingly. Second, the higher individual anxiety level caused the higher reasons for sexual compliance, and the more unwanted sexual compliance appeared accordingly. Third, the individual closeness level affected women directly in unwanted sexual compliance. The higher closeness level caused the more unwanted sexual compliance.

Key Words : unwanted sexual compliance, attachment, sexual relationship power, difference in relationship commitment, reasons for sexual compliance